



기독교적 학문의 본질

— 개혁주의적 관점에서 본 학문 —

강용원

1. 들어가는 말 : 개혁주의의 핵심

2. 기독교인의 신앙과 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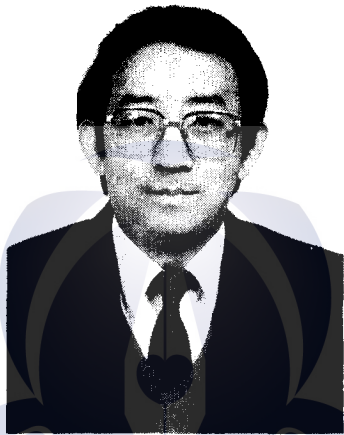
3. 학문의 본질

4. 기독교적 학문의 필요성과 가능성

5. 기독교적 학문의 조건

6. 기독교적 학문을 위한 방향

7. 마무리하는 말



강용원
1950년 7월 8일 서울에서 출생.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에서 과학교육(물리학)을 전공하였으며, 장로회 신학대학에서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하여 문학석사의 학위를 받은 후 고신대학 대학원(구약학 전공)에서 신학석사 학위를 받았다. 1982년 고신대학에서 전임강사로 시작하여 현재 부교수로 재직중이며, 1985년부터 1990년까지 스위스 쾰리히 대학교 신학부에서 실천신학(종교교육학)을 전공하여 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 들어가는 말: 개혁주의의 핵심

흔히 사람들은 개혁신앙을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라는 말로 요약하기도 하는데, 개혁신학의 강조점들을 열거해 본다면 하나님의 주권적 은총과 영광 사상,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의 책임, 최고 권위로서의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역사 강조 경건과 학문의 조화 추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실현하는 문화변혁의 사상 등이다. 개혁신학 사상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그에게 영광돌리는 것을 가장 근본되는 특징으로 한다. 개혁신학은 인간 자신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생각을 집중시킨다. 즉 나의 어떤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 주권적 은총은 개인적인 것을 넘어서 우주적 차원을 지니고 있다. 이 주권적 의지는 우주의 전 영역과 역사와 영원 속에 역사한다. 칼빈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영역을 단순히 영적인 세계에 국한하지 않고 국가, 사회, 인간공동체 등 인류역사 전체까지 포괄한다. 사람과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주권적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개념에서부터 시작하여 영원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영광의 비전에 이르기까지 실로 우주적이다.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스도의 왕권이 생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는 인생관과 세계관, 즉 시공을 초월하는 하나님 나라의 신학, 이것이 바로 개혁주의 신학의 대전제인 것이다.

칼빈은 그의 기독교강요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서부터 시작하여 참다운 경건, 사랑, 존경, 하나님에 대한 경외 등을 강조한다. 그러나 그는 이 강요를 전통적 교의학에서처럼 종말론으로 끝내지 않고 ‘시

민정부'에 대한 章으로 끝내고 있다. 그는 정부를 교회와 더불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기 위한 수단이요 신에 의해서 제정된 기구로 파악하고 있다. 두 왕국설에 기초한 루터에게 있어서는 교회와 국가 사이에 이원론적인 긴장이 있으나, 칼빈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주권에 기초한 일원론이 성립한다. 그에게 있어서 양자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일 구조라는 분리될 수 없는 전체 속에서 단지 기능의 차이로만 나타날 뿐이다. 그는 기독교적 이념은 문화, 경제, 정치 영역 뿐만 아니라, 전 창조의 질서와 그 속에 있는 삶 속에서 구현되어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주권은 종교적인 삶에만 머물지 않고 삶의 총체적 영역을 지배하기 때문이다. 즉 우리의 삶의 그 어느 부분도 하나님의 주권적 관심과 통제 밖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세상의 어느 부분은 종교적이며, 또 다른 부분은 세속적인 것이라고 구분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게 된다.

삶에 대한 모든 소명은 창조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목적과 직접 연관되며, 그 소명을 이루는 것은 곧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세속사회 속에서 신자의 문화적 사명은 소극적 의미에서 허용된 일(루터)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행해야만 하는 당위적인 일이다. 칼빈은 우리의 삶의 모든 구조 속에 죄의 치명적인 영향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인간의 문화적 활동에 있어서도 인간의 죄된 본성이 반영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인간의 삶의 구조, 즉 문화가 변혁되어야 할 것을 주장한다. 칼빈은 이 하나님의 왕국이 기독교(적)문화와 사회이념에 의해서 어느 정도는 이 세상에서 구현될 수 있다는 낙관적 의식과 문화적 진취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이와같이 문화변혁 사상은 개혁주의의 중요한 원리로서 최근에 기독교인들 사이에 문화를 말씀의 빛에 비추어 해석하고 변혁함으로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노력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은 대단히 다행한 일이다. 이와 관련하여 기독교인은 학문을 기독교화할 필요성을 느끼고, 기독교적 학문의 정립과 전수, 발전을 위해 여러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2. 기독교인의 신앙과 삶

신자의 삶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 태어난 자의 삶이다. 이 일은 물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믿음을 통해서 가능하며, 그것은 근본적인 삶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러한 삶의 변화는 “관계의 변화”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인간이 관계하는 모든 부면들이 관련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 태어난 사람은 이제 그의 전 생애를 통하여 **성화**의 과정을 밟아 나간다. 이 성화는 점진적으로 이루어 지는 것으로, 사람이 관계하는 모든 사물과 인간, 그리고 그가 접하는 모든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삶의 변화를 말한다.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예배적 사명), 옆으로는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정립하고, 선교의 사명을 새롭게 하며(인화, 선교적 사명),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을 개발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문화적 사명) 일을 포함한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명령(Great Commission: 마 28:19, 20)과 함께 문화적 명령(Cultural Mandate: 창 1:28)을 주셨는데 문화적 명령은 인간 타락 이전에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점에서 좀 더 본래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듯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자신의 전 존재와 인식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전 인격적 변화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수 많은 신분이나 자격에 추가된 또 하나의 신분이나 자격이 될 수 없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행위를 특징짓는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을 특징짓는 행위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야 할 것이다. 우리의 삶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새로와졌을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은 또한 ‘믿음의 표현’으로서의 삶이 된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관계하는 삶의 모든 영역과 관련되며, 그것이 곧 우리들의 변화하는 모습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학문은 우리의 신앙이 미치지 못하는 낯선 땅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표현되고 고백되어야 할 삶의 중요한 한 활동 영역이 되는 것이다.

3. 학문의 본질

기독교 학문의 논의에 앞서서 우리는 학문의 본질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학문의 힘과 한계’에 대한 바른 인식이야말로 우리를 기독교적 학문에 대한 바른 논의로 이끌어 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신자들에게는 학문의 힘과 한계의 문제가 곧 바로 신앙과 학문의 문제와 관련된다. 학문을 하다보면 신앙을 통해서 얻어진 세계관과, 학문이 제시해 주는 세계관 사이에는 부분적인 조화가 있는 반면 상당히 상반되는 면도 존재함을 알게 된다. 이때 그리스도인은 이중적 구조, 즉 학문과 신앙의 두 개의 세계관을 별개로 취급할 수 있는가? 무엇보다도 우리는 먼저 다음과 같은 과학(학문)의 몇 가지 구조적 특징을 정리해 봄으로 학문에 대한 바른 관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학문의 제한적 성격을 들 수 있다. 학문은 현실의 구조와 의미를 밝히고 현실 가운데서 사람이 바른 위치에서 살아가기 위한 인간의 노력이다. 그러나 그것은 유일한 전략이 아니고 가능한 전략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 인간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바른 방향을 설정하도록 인도하는 것은 학문만이 아니다. 또한 개별 학문은 사물의 한 측면만을 연구하는 것으로, 우리는 한 학문이 현실의 모든 것을 파악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더욱이 많은 학문은 조건의 통제를 통해서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거나 극히 부분적인 상황을 다루고 있다. 즉 거의 대부분의 이론이나 법칙은 그러한 환경에서만 적용되며, 합당하게 설명된다. 화학에서 말하는 엄밀한 의미에서의 물은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만나는 물이 아니며, 많은 법칙이 표준상태를 가정한다. 그러므로 한 학문이 현실의 모든 것을 망라하지 못하며, 학문보다는 역시 현실이 더욱 풍부하다는 것이 사실이다.

둘째로 학문은 변한다는 것이다. 학문적 진리는 언제나 변함이 없는 영구불변의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다. 학문(특히 자연과학)은 사실

을 근거로 하여 가설, 증명, 이론형성의 순서가 순환적으로 진행되며, 이러한 과정 속에는 연역, 추리, 예언등의 정신적 작용이 동반된다. 그러므로 (어떤 이론도 완성된 이론이 아니라, 잠정적인 것이기에 학문의 열린 체계가 가능해 진다) 유클리드(Euclid) 기하학은 리만(Georg Friedrich Bernhard Riemann)의 기하학으로, 뉴톤(Sir Isaac Newton)의 물리학은 아인슈타인(Albert Einstein)의 물리학으로 발전, 보완, 수정되어 갔다. 과학적 진리는 언제나 깨어질 가능성 속에 있으며, 그것을 절대화하거나 도그마화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신자는 학적 이론을 최종적인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되며, 학문 자체에 대한 지나친 신뢰성도 버려야 한다. 학문을 통해서 신앙을 고백할 수는 있어도 학문 자체가 신앙고백은 아니다. 신앙고백은 우리를 잃어 가는 것이나 학문은 어느 정도 자유로운 것이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학문을 비판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셋째는 학문의 주관성이다. 최근의 과학철학자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객관적인 것은 없다고 보고, 모든 과학적 탐구는 주관적 가정의 틀 안에서 유도되는 것임을 밝히게 되었다. 토마스 쿤(Thomas Kuhn)은 소위 패러다임 이론을 제창하였는데, 그에 의하면 학문의 공동체는 그들이 하는 일체의 활동은 물론 그들의 가설과 가치관까지도 그 공동체가 받아 들이고 있는 패러다임 또는 '지적인 틀'(intellectual framework)에 의하여 크게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주관적인 편견에 치우치지 않고 최대의 객관성을 지키려는 기초과학의 실험에 있어서도 실험기구들의 선택이나 조작방법, 그리고 그 조작들을 통하여 얻는 실험치의 취급에 이르기까지 그 과학자가 속하여 있는 공동체가 받아들인 통합적 이론 곧 패러다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문의 방법이 편견없이 자연과 현상을 있는 그대로 접근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다. 일정한 이론과 가설, 문제설정, 엄격한 방법적 제한과 도구선정 등이 없이는 이와 같은 경험적 연구방법은 불가능하다. 이런 의미에서 학문이 밝히고자 하는 현실의 구조와 의미는 오직 질문하고 요구하는 이성에게만 그 모습을 드러낸다.

4. 기독교적 학문의 필요성과 가능성

학문은 현대인에게 어떻게 인간과 사회를 볼 것이며 자연과 문화를 이해해 줄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일종의 세계관이 되었다. 따라서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건 비그리스도인이건,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현대 학문이 형성한 세계관의 영향을 피할 수 없으며 그 안에서 숨쉬고 생각하며 행동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아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필연적으로 현대의 세계관과 부딪치게 되어있다. 왜냐하면 신자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 예수의 제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기독교적 사고가 결여되어 있고, 기독교 대학이 있어도 기독교적 학문은 방치된 상태이다. 신앙을 돈독히 하고, 기독교적 사고, 기독교적 학문의 개발,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 학문 속에 깊이 들어가 그 가운데 깔려 있는 전제와 신앙을 노출시키고 기독교적 신앙과 전제에 어울리는 연구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반적 학문의 경향이 인식론적 전제를 강조한다면, 기독교적 학문의 시도는 오히려 존재론적 전제를 중요시 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언급하였거니와 과학철학 분야의 연구에서 17세기 이후의 서양학문을 지배한 객관주의적, 과학주의적, 실증주의적 과학관이 이미 일정한 편견과 특정한 세계관의 지배를 받고 있음을 보여준 것은 기독교적 학문의 가능성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왜냐하면 기독교적 학문은 과거의 과학관을 가지고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최근의 연구 결과를 정리해 본다면, (1) 객관적인 경험이란 엄밀히 말해서 존재하지 않는다. (2) 이론은 객관적 경험으로부터 귀납적으로 추론된 결과가 아니고, 감각적 경험에 앞서 구상된 일종의 추측이요 그물과 같다. (3) 이론은 언제나 세계관적인 전제, 신앙, 혹은 편견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밝혔다. 어떤 이론이라도 무에서 창조되지 않으며, 문화와 사회와 종교의 지배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학문과 신앙의 충돌은 실제로 학문과 신앙의 충돌이 아니라 그 학문의 바탕에 깔려 있는 자연주의적 세계관과 기독교 신

앙의 유신론적 세계관의 충돌이다. 오늘의 학문은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이 자연주의적 세계관에 의해 지배를 당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나님은 아예 추방 당하고 인간과 세계도 그 인격적, 질적 측면이 무시된 채 수량적, 경험적 기술이 가능한 대상으로만 취급된다. 따라서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학문과 신앙의 통합이 아니라 어떤 신앙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학문과 신앙은 이미 통합되어 있으며, 학문은 이미 종교적이기 때문이다.

기독교 학자는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다. 그 선택이 기독교적인 것이라면, 그것이 학문하는 작업에서 이론구성과 이론평가의 “통제신념”(control belief)이 되어야 하고, 이것에 따라 연구를 진행해 나가야 한다. 월터스트로프(Nicholas Wolterstorff)는 말하기를 어떤 이론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 평가자는 항상 자기의 신념의 전체 복합체를 가지고 그 일에 착수하게 된다고 하면서 그 가장 중요한 신념들을 통제신념이라고 불렀다. 그는 기독교적 학문이란 “기독교 학자의 종교적 신념이 그의 이론 형성과 평가에 있어서 통제신념으로 기능하는 학문”이라고 결론을 내린다. 기독교 학자는 언제나 이러한 통제 신념을 가져야 하며, 동시에 그 이론이 이론으로서 갖추어야 할 좋은 특성을 갖도록하여야 한다. 즉 경험과의 일치성, 설명 영역의 광대성, 다른 이론과의 체계성, 논리적 일관성 등을 아울러 갖추어야 한다. 즉 학문적으로 타당하며 책임성 있는 형태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다.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

5. 기독교적 학문의 조건

학문을 기독교적으로 만드는 조건에 관한 몇 가지 일반적인 견해가 있는데, 헤르만 (Kenneth W. Hermann)은 이것을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 (1) 학문연구를 기독교적인 것으로 되게 하는 것은 그 연구의 주제라고 생각하는 견해이다. 예를 들면, 음악에서는 예배나 미사 등을 위한 음악, 미술에서는 여러 주제를 그린 성화, 철학에서는 기독교 철학, 역

기독교사상연구 창간호 /1992.6.

사에서는 교회사나 기독교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역사학 등이다. 그러나 이렇게 연구 주제를 따라서 기독교적 학문연구를 국한시키는 것은 결국 영역을 제한시키고, 필연적으로 이원론을 조상한다. 그러므로 기독교적 학문이란 종교적 냄새가 나는 몇몇 학과나 주제들에만 관련되어서는 안된다.

(2) 사물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가 수행된다면 그것은 기독교적 학문이 된다는 견해가 있다. 즉 객관적인 학문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하나님의 진리에 도달할 수 있으며 성경과 같은 통찰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현실적이지도 못하며, 가능하지도 않다. 이것은 기독교와 학문의 분리를 전제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으며, 앞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학문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가정한다는 점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생각이다. 또한 이 견해는 하나님의 조명없이도 창조의 구조와 질서에 대한 참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는 자율적인 인간의 이성에 대한 가정을 기초로 하고 있다. 물론 세속 학자들이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관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 발견이 극히 제한적이며 또한 왜곡될 가능성이 크며, 동시에 그 의미와 가치가 오해된다는 말이다.

(3) 학문적 연구의 결과가 기독교의 목표에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임으로 학문적 연구는 기독교적인 것이 될 수 있다는 견해이다. 여기서 전제를 하는 것은 모든 학문적 연구는 중립적이며,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그 가치가 좌우되므로 기독교적 목표를 위하여 그것을 사용하면 기독교적인 연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도 역시 사실과 가치의 분리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오류를 범한다. (창조과학회의 사역이 창조론의 과학적 타당성의 변증을 위해서만 가치가 있다면 곤란하다. 과학적 창조론은 교회적 목표에 보조적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연구하는 일반적 학문의 한 분야로서 중요한 가치를 가져야 한다.)

그러므로 기독교적 학문이란 이상과 같은 견해와는 달리 기독교적

신앙에 기초하여 각 학문 분야의 조망을 형성하는 세계관을 가지고 학문을 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노력이 될 것이다.

(1) 학문활동의 주체인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가 학문형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인간을 기계적으로 본다면, 그는 인간의 지적 활동을 종교적 신념에서 쉽게 떼어 놓을 수 있다. 인간의 자율성으로부터 시작하는 사람은 학문의 최종적 기준을 인간의 합리성에다 두는 위험에 빠지게 된다. 성경적 인간관을 가진 자는 학문적 활동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나타내기를 원한다. 그의 학문의 동기는召命에 있다. 그의 학문활동은 결코 자기 중심적이지 않으며,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며 또한 인류를 위해서 봉사한다는 보다 깊은 동기를 갖고 있다.

(2) 학문은 그 탐구대상에 대한 이해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기독교적 이론은 실재론(realism)이어야 한다. 우리는 관념론자들처럼 사물이 관점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지 않는다. 만물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우리의 인식에 상관없이 언제나 거기에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다. 지극히 소박한 실재론이다.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실재에 대해 정리해 본다면, ① 실재는 창조되었다. 그러므로 창조된 실재는 그 어떤 것도 창조자와 구분된다. ② 실재는 오염되었다. ③ 비록 오염된 실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섭리, 유지하신다. ④ 오염된 실재이지만 어떤 법칙에 따라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⑤ 실재는 구조적이다.

(3) 기독교적 학문은 환원주의(reductionism)를 엄격히 배격한다. 마음을 육체의 산물로 설명하거나, 물질을 정신의 산물로 처리하려는 것은 기독교의 실재론과 일치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지으신 각각의 구체적인 사물들 하나하나는 (다양한 양상) 그 본질과 가치에 있어서 다른 것과 대치될 수 없는 독특한 존재이다. 예를 들면, 정신은 육체로 환원될 수 없다. 정신이 육체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어느 정도 증명될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인격은 다른 어느 것으로도 환원될 수 없다. 모든 인간은 자유의지를 갖는다. 어떤 사람이

어떤 결심을 하거나 결단을 내리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영향을 줄 수는 있으나 그 영향들이 결단을 만들어 내는 것은 아니다.

(4) 학문의 역사를 보면 하나의 방법으로 모든 현실을 설명하려는 시도가 있어 왔음을 보게 된다. 예를 들면, 수학적 방법을 형이상학에까지 적용하려 하거나 (예, 스피노자는 그의 형이상학적 저서인 ‘윤리학’에 ‘기하학적 방식으로 논증한’이라는 말을 덧붙임) 또는 상당한 신학자가 하나님의 존재나 신학적 명제들을 수학적 방식으로 증명해 보려고 노력한 일이 있었다. 논리실증주의자들은 수학과 논리학을 제외하고는 실험과 관찰로 검증 가능한 경험명제를 담고 있는 학문만이 참된 과학이라고 보고 그외의 학문은 과학의 자리에서 추방해 버렸다. 그러나 모든 학문에 통용될 수 있는 보편방법은 없다. 각 학문은 성격과 대상과 목적에 따라서 전혀 다른 방법을 요구할 수도 있다. 어떤 한두 가지의 방법이 현실의 다양한 삶의 풍부성을 모두 포착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하나의 방법을 고집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기독교 학문은 방법을 다양화시켜야 하며, 현상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법에 대한 문을 열어 놓아야 한다. 어쩌면 우리에게는 “순종과 귀기울임”으로 우리의 현실을 더욱 더 잘 이해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5) 비판적 작업과 대안적 활동을 동시에 감당해야 한다. 기독교적 학문은 현존하는 또는 흔히 인정될 수 있는 이론들까지도 다양한 비판 형태에 종속시키며, 단순히 비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 대안을 제시하는 일에도 노력해야 한다. 물론 적극적 대안을 내는 단계는 매우 성숙된 단계에 속하는 이야기이고 어쩌면 요원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목표를 가져야 하고 제학문의 영역에서 기독교적 이론들이 제시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6) 학문의 결과는 유용한 방향으로 사용될 수도 있으며, 인간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기독교적 학문은 그 결과

를 유용한 방향으로 사용해야 하며, 기독교신자인 학자는 그 자신이 자기 영역에서 타당한 지식을 생산하고 전파해야 하는 독특한 책임을 지고 있으며, 또한 학문의 결과를 인류의 복지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용하도록 해야하는 책임이 있다.

신앙은 학문활동에서 우리에게 용기를 준다. 어떻게 신앙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가? 가까운 예를 들어 말한다면 진화론자들이 그들이 가진 제한된 자료를 가지고(소위 “잃어버린 간격”) 일반화하는 일을 볼 때, 우리는 변증적 자세를 갖게 되며, 다른 자료를 찾을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된다. 즉 진화론의 증거를 세밀히 학문의 방법으로 반박하며, 창조적 세계관을 지원하는 자료들을 검색하는 용기를 얻게 될 것이다. 또한 신앙은 바른 세계관에 입각하여 이루어지지 않는 학문의 경향성에 비판을 가할 뿐만 아니라,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이론에 대해서도 의심해 볼 수 있는 용기를 준다. 또한 우리에게는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는 해석의 상황에서(진화론자들은 화석의 증거를 진화를 지원하는 근거로 삼으나, 창조론자들은 그것을 “각각 그 종류대로” 지어진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삼을 수 있다) 신앙은 해석의 방향에 영향을 줄 것이다. 가끔 만나게 되는 성경의 가르침과 학문의 현실이 다를 때, 신앙은 우리의 학문을 의심해볼 수 있게 하며, 그래도 풀리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판단을 보류하고 그 문제를 열어 놓는 용기를 갖게 할 것이다. 우리의 신앙은 또한 우리의 탐구 영역이나 관심의 분야를 정하는 일에 영향을 줄 것이며, 처음부터 가지고 출발하는 신앙의 전체적인 관점은 개별학문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부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뿐 아니라, 항상 전체를 고려하는 일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더 나아가 간학문적(interdisciplinary) 접근이 활발한 우리의 상황에서 개별학문의 타 학문과의 관련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갖게 해 줄 것이다. 하나님의 진리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진리이기 때문이다.

6. 기독교적 학문을 위한 방향



기독교사상연구 창간호 /1992.6.

이제 기독교적 학문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하자.

(1) 이미 초두에 밝힌 바와 같이 하나님의 절대주권은 삶의 총체적 영역을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그 어느 부분도 하나님의 주권적 관심과 통제 밖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세상의 어느 부분은 종교적이며, 또 다른 부분은 세속적인 것이라고 구분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원론을 받아들일 수 없다. 기독교적 학문과 세속학문이라는 구별도 없다. 무슨 책을 읽고 어떤 분야의 연구를 해도 그것은 기독교적 학문이 될 수 있고 또 되어야 한다. 칼빈도 이를 분명히 했다. 비록 이방인이 발견한 것이라 해도 그것이 진리라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의 산물이라고 했다. 모세는 애굽의 학문을 배웠고, 다니엘은 바벨론의 학문을 배웠다. 그들은 불신의 교사들로부터 지적훈련과 지식과 이해를 얻었고 그것을 이용하였다. 그러므로 기독교적 학문이라는 것은 세속 학문과 구분되는 어떤 다른 학문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학문이란 이 하나님이 내신 질서있는 세상의 현상과 관계들에 대한 탐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독교적 학문이란 일반적인 연구의 결과들을 이용할 수 있으며, 동시에 기독교적 접근의 노력을 통해 기독교적인 학문으로, 더욱 바른 학문으로 만들어 나간다는 의미이다. 기독교적인 접근을 한다고 해도 우리는 완전히 오류를 피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학문이란 언제나 오류가 많은 인간의 작업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완성이 있을 수 없으며, 어찌면 그것은 영원한 순례의 길인지도 모른다.

(2) 다시 반복하거니와 기독교적 학문이 단시일 내에 완결될 수 있다고 기대해서는 안된다. 전세계적인 토론을 통해서 어떤 기독교적 이론이 나왔다고 해도 그것은 영원불변한 것이 될 수 없으며, 절대로 하나님의 진리라고 불려서도 안된다. 학문은 오류를 가진 인간의 노력이며, 학문은 본질상 현실의 풍부함을 언제나 다 드러내지 못한다. 학문은 반드시 논리성과 근거를 가지는데, 논리는 하나님의 세계의 풍부함을 다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참된 생물학은 생명

체의 상태나 구조에 대해서 바른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으며, 하나님의 창조행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밝혀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행위에 대해서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 만큼 그렇게 확실한 지도를 제공해 주지는 못할 것이다. 이것은 생물학의 무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행위는 어떤 과학적 추구를 통해서도 다 드러낼 수 없기 때문이다. 오직 성경만이 그것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 즉 참된 지식을 전해 준다. 그러므로 학문은 우리가 언제나 겸손할 것을 요구한다.

(3)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다른 신을 섬긴다. 인간은 신자이건, 불신자이건 어떤 견해, 즉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세계관은 논리적이거나 보다는 다분히 신앙고백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학문에서도 신앙고백은 이루어져야 한다. 잘못된 신앙은 피조물을 창조주의 자리에까지 격상시키는데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이다. 합리주의로부터 막시즘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의 절대화의 기원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므로 학문에서 이런 우상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학문에 대한 기독교적 조망을 위한 선결 문제이다. 그러므로 기독교적 학문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독교적 관점을 보다 치밀하게, 보다 현실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즉 성경적 세계관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이론적 틀'을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일은 한 개별 학자로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학자, 철학자, 개별 학문 분야 종사자 등의 공동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무식할 권리는 없다. 기독교인이 비학문적이 되어서는 안되고, 비학문적인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식의 안이한 생각을 해서도 안된다. 우리는 비기독교인 보다도 더 많이 알아야 하며 따라서 그들보다 더 열심히 연구해야 한다. 해당분야에서 비그리스도인 동료들을 능가할 수 있는 뛰어난 학자가 되어야 한다. 이 두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을 때 기독교적 학문은 어느 쪽에도 기여하지 못하는 절름발이가 될 수밖에 없다.

(4)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학자들로서 하나가 되라는 그리스도의 가르

기독교사상연구 창간호 /1992.6.

침을 따라 서로를 폭넓게 수용하고 도와 주어야 한다. 자기만이 옳다고 하는 태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다. 가능한한 우리는 기독교적 학문을 위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견고히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며, 기독교 학문 공동체를 위한 기도의 재정과 후원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건이다.

7. 마무리하는 말

우리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하는데 이는 학문의 길에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임에 틀림이 없다(고후 10:5). 기독교적인 학문의 형성은 신앙과 학문을 통합하고자 하는 일관성 있는 지적 탐구활동의 체계적 결과이다. 기독교인 학자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신앙을 갖고, 적절한 탐구방법과, 잘 확립된 세계관과 학문관을 가져야 한다. 그는 자신의 탐구영역을 통하여 창조주의 오묘함을 밝히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인류의 복지를 위하여 봉사하는 것이다. 여기서 필자는 이 글을 맺으며 다음 몇 가지를 다시 강조하고자 한다.

- (1) 기독교인 학자는 (기독교적) 학문 자체에 대해서 겸손해야 할 것이다.
- (2) 기독교인 학자는 자신의 신앙적 관점을 연구활동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
- (3) 기독교적 학문의 목표는 세속학문과 구별을 지으려는 것이 아니고 학문 자체를 전체적으로 참되게 하고 또한 기독교적으로 만들어 가려는 노력이다. 그러므로 이 일은 단시일 내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어찌면 이러한 노력은 완성을 향해 나가는 순례자의 길인지도 모른다.
- (4) 기독교인 학자에게 중요한 두 가지 요소는 영적인 탁월성과 지적인 탁월성을 겸비하는 일이다.
- (5) 고신대학은 기독교대학을 지향하는 대학으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교수들의 기독교적 학문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곳에 모이게 하시고 학문의 공동체를 형성시켜 주셨다. 우

리에게 신앙의 용기와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이 공동의 작업에 매진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도서

- 강영안, 「기독교와 사회, 학문, 대학」, 기독교대학설립동역회 소책자 6.
- 강영안, 「학문의 힘과 한계」, 기독교대학설립동역회 소책자 5.
- 김성수, 「학문에 대한 기독교적 조망」, 기독교대학설립동역회 소책자 18.
- 손봉호, “기독교학문의 조건”, 새로운 지성, Vol. I, No. 4. (1987. 815)
- 손봉호, “현대과학과 기독교”, 현대정신과 기독교적 지성, 서울: 성광문화사, 1978: 203 - 208.
- 양승훈, 「기독교적 학문연구」, 기독교대학설립동역회 소책자 4.
- 이근삼, 「칼빈주의 문화관과 학문론」, 고신대학부설 기독교교육연구소 연구 시리즈 4.
- Walsh, Brian J. & Middleton, J. Richard, *The Transforming Vision*, 황영철 역, 세계의 변혁을 위한 그리스도인의 비전, 서울: 한국 기독교 학생회 출판부, 1987.